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연일 지속되는 더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 감사 제목

1. 가족 이야기

저와 내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OMF 동원사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동원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줌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사역의 기회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적 코칭 워크숍”으로 섬겼고, 7월에는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세 번의 연속된 선교강의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OMF 선교도서도 계획대로 두 달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선교지에 가지 않았지만 OMF 선교사로 본국 사역을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벤자민 브룸홀”의 생애와 사역을 다룬 “복음의 후방에서”가 발간되어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고, 최근에는 저의 줄거 “조이스토리”가 출간되어 “OMF 패밀리멤버”들께 전달했습니다.



3. 죠이 선교회 사역

죠이 선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캠퍼스 내의 시설이나 주변 교회의 시설을 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각 지부가 사역을 위한 센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서울 서지부, 남지부 그리고 6월에 전주 지부의 센터를 개설해서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전주 지부가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암울한 시대에 젊은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죠이 선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유지해왔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의 두 번에 걸친 리더 회의에서 리더들은 성숙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의 구조를 단순화 하는 작업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죠이는 현장사역부와 지원사역부로만 구성되며, 각 현장사역부와 지원사역부의 사역조정과 인사배치는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도 제목

함께 중도기도해 주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죠이선교회 사역

1) 죠이 선교회 조직 개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죠이 선교회의 조직 개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사역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어떤 사역을 줄일지, 어떤 사역은 중단해야 할지, 또 어떤 사역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존의 사역들은 더 힘을 실어주고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왕국 차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

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위한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2) 간사 교육과 훈련

후반기부터 죠이 선교회 간사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커리큘럼을 재정비하며, 무엇보다 함께 교육에 참여할 사역자들 위해 기도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죠이 패밀리 멤버

죠이 선교회에 “죠이패밀리”라고 하는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 후원시스템은 죠이선교회가 사단법인으로 회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4) 태스크포스 팀

“죠이 선교회” 정관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내규를 살펴 부족함 없이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꾸렸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2. 인도네시아 죠이사역

1) 코로나 상황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5만 명을 넘었으며 큰 도시는 거의 락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죠이 동문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에 주님 품에 갔으며, 죠이에서도 리아 간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죠이의 모든 간사들이 밀접접촉자가 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2) 재단 설립과 토지 매각 계획

“인도네시아 죠이펠로십 재단” 설립에 많은 진전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15개 부처의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부탁 드립니다. “스뚜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현재 토지 매각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 사역방향

인도네시아 죠이사역에 대해서 동문들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재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따리간”이라고 하는 전 죠이 간사와 대화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죠이 사역이 단순히 족자의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죠이 동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터사역”으로의 확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조만간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죠이 동문 대표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역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미국 방문

저와 아내가 일주일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특별히 93세인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데, 더 어려워지기 전에 뵈려고 합니다. 델타 바이러스로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말씀과 기도에 전념

최근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디도서에서 리더의 자격에 대해 언급한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묵상하며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역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때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21년 8월 4일

주 안에서

손창남 · 안은숙 선교사 드림